

“근로 정신대 역사 제대로 가르치는 선생님 될래요”

日 역사왜곡 현장 탐방 '광주 한일청소년평화교류단' 최형선 양



지난 17일 광주 NGO센터에서 '2013 한일청소년 평화교류 일본 방문활동 보고회'가 열렸다. 광주지역 학생들의 일본 방문은 일본의 경제와 움직임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역사교육의 중요성을 청소년들에게 알리고자 시작됐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과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 지원회가 지난 2010년 시작한 행사는 이번이 4번째다. 이 자리에 참여한 광주지역 15개 고등학교 21명은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3박4일 동안 '한일청소년 교류단'이란 이름으로 일본 나고야 지역을 방문했다. 학생

들은 일제 강점기 '근로정신대'란 이름으로 끌려간 당시 10대 소녀들이 부역했던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와 지진희생자 추모비, 일제시대 방공호 등을 둘러보며 느꼈던 이야기를 학부모들과 함께 나눴다.

일본 드라마와 가수를 좋아했다는 광주 상일여고 2학년 최형선(16)양은 이번 방문이 단순한 여행을 넘어 그동안 잘 몰랐던 이웃나라 일본과 우리 역사에 대해 많은 것을 느끼게 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그녀는 한국과 중국 정부가 반발하고 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일본 정치인들을 보며 화가 났다고 말했다. 하지만 막연한 반감이 있었을 뿐 근로정신대와 위안부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몰랐던 자신이 3박4일 동안 180도 달라졌다고 털어놴다. 특히 '아이치평화전'을 보며 일본과 일

본인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나고야에서 열리는 아이치평화전은 일본 내 양심적인 시민단체들이 마련한 전쟁 자료관으로 영상과 회화를 통해 전쟁의 참혹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시민단체들은 과거 일본정부가 저질렀던 만행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며 진실 어린 사죄를 촉구하고 있다.

최 양은 일본 시민단체가 감추고 싶은 과거를 적극 드러내고 개선하려는 움직임을 높이 평가하며 우리 스스로에 대한 반성도 촉구했다.

“1944년 프랑스가 나치 점령에서 벗어난 후 프랑스 임시정부 주석이었던 샤를 드골은 나치를 도왔던 사람들 거의 대부분을 처벌한 후, ‘프랑스가 다시 세계의 지배를 받더라도, 또다시 민족 반역자가 나오는 일은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그런데 한국은 초대 정부가 친일파를 청산하려던 반민특위를 해체했고 친환에 복종하겠다고 협서를 쓴 사람이 대통령이 됐죠. 우리가 제국주의역사의 피해자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런 역사에 대해 얼마나 알고 반성하고 있을

까요?”

10대 꽃다운 나이에 일본으로 끌려가 해방 후에도 돌아오지 못하는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은 고국에서 자신들을 찾아온 학생들이 마냥 고마웠다. 어느덧 세월의 주름이 깊게 파인 팔손 할머니가 되었지만 학생들이 불러주는 아리랑 노랫소리에는 꿈 많은 소녀들처럼 흐르는 눈물을 막지 못했다. 뜨거운 눈물을 닦아주며 그들의 슬픔을 오롯이 느꼈다는 최형선 양. 그녀는 역사 교육의 중요성을 직접 보고 느낀 만큼 앞으로 역사를 왜 배워야 하는지 제대로 가르쳐 줄 수 있는 선생님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어린 학생들도 친구들과 싸우면서 지내는데 한 번 싸웠다고 영원히 등을 돌리지는 않아요. 서로 서운했던 부분을 이야기하고 사과하고 다시 친하게 지내죠. 한국과 일본이 과거 역사에 양심이 여전히 남아 있지만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함께 발전하는 사이가 되면 좋겠어요. 여기에 힘을 보탬 수 있도록 역사 열심히 배우 한국사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 사진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광주, 공동모금회 '사랑을 나누는 학교' 선정



사랑의열매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상렬)는 최근 광주교 학생 56명이 'LOVE SHARE 사랑을 나누는 학교'에 석산고, 첨단초, 동아여고, 국제고에 이어 다섯 번째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목포해경, 청소년 명예해양경찰관 발대



목포해양경찰(서장 김문홍)은 지난 17일 목포해양경찰 1508함에서 지역청소년과 함께 하는 명예해양경찰관 운영 발대식을 열고 체력행사를 진행했다.

광주경찰청 IT봉사단 운남동 노인복지관 위문



광주경찰청(청장 정순도)은 최근 운남동 광산구 노인복지관을 방문해 컴퓨터를 정비했다. 특히 무더위에 힘겹지 않도록 삼선전자 A/S봉사팀과 함께 냉방시설을 점검했다. <광주지방경찰청 제공>

“엄마, 저 한국서 잘 살고 있어요”

이주여성 카이양링씨 캄보디아 친정 방문기 음반 출시

사회적기업 행복문화사업단(공동대표 이춘석)은 최근 캄보디아 출신 이주여성 카이양링(25) 씨의 친정방문 이야기로 만든 음반을 출시했다고 18일 밝혔다.

본보 <2013년 3월 26일자 18면>에 소개됐던 카이양링 씨는 시민들의 정성으로 성금을 모아 가족과 함께 지난 3월25일부터 10일간 캄보디아에 다녀왔다.

타이틀곡 '엄마 찾아 캄보디아'는 고향을

다녀온 카이양링 씨가 작사를 맡았고 바위선 작곡가 배창희의 남부대 실용음악과 교수가 작곡을, 가수 박승희 씨가 노래를 불렀다.

이곡에는 '제가 낳은 손주예요, 이제 엄마 마음 알 거 같아요', '한국에서 잘 살고 있어요' 등 이주여성들의 심정을 표현했다. 노래는 행복문화사업단 홈페이지(www.happy.net)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박승희 씨는 19일 오후 2시50분 남부대하



교 협동관에서 첫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행복문화사업단은 캄보디아 이주여성 고향방문에 이어 중국 이주여성 고향 보내기를 준비 중이다.

/*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인문학 저변확대로 정신적 가치 공유”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출판사 '우정문고' 설립

“출판사를 통해 경제발전이 걸맞은 국가 문화 향상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중견 건설업체인 부영그룹의 이중근 회장(72)이 인문학 저변 확대와 발전을 목표로 출판사를 만들었다.

부영그룹은 16일 이 회장이 최근 자신의 호를 딴 출판사 '우정문고'를 설립하고 주거 문화와 관련된 책 2권과 6·25전쟁 역사서 등 총 3권의 책을 펴냈다. 그동안 국내 교외에 기숙사를 지어주거나 동남아시아 개발도상국에 디지털 피아노를 기증하고, 한류 졸업식 문화를 전파하는 등 교육·문화 중심의 '나눔경영'을 실천해온 이 회장은 좀 더 체계적인 사회 공헌 활동을 위해 출판사를 차렸다.

이 회장은 “진정한 선진국으로 도약하려면 물질적 풍요와 더불어 성숙한 정신적 가치를 공유해야 한다”며 “국민의 정신 수준을 높이고, 지식정보화 시대의 길을 밝히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출판사 설립과 함께 처음으로 펴낸 책은 이중근 회장의 박사학위 논문을 보완한 '임대주택정책' 개정증보판, 시대와 지역별로 요약보통사가 가정으로 방문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 광주서구지역 자활센터 062-351-3029.

▲신용사회 만들기 시민연합 채무상담 = 채무로 고통받는 사람과 신용불량자들의 신용회복을 위해 채무상담(무료) 매주 월~금 오후 5시 062-226-9001~2.

▲홀트아동복지회 국내입양 가정 = “입양은 가슴으로 낳은 사랑입니다” 입양을 통하여 행복한 가정을 원하시는 분들께 도움을 드립니다.(24시간 상담가능) 홀트아동복지회 광주지부 062-227-8877.

“루게릭 병원 건립에 써주세요”

'빅뱅' 지드래곤, 8180만원 기부

빅뱅의 지드래곤(25·본명 권지용)이 지난 18일 자신의 생일을 맞아 루게릭요양병원 건립을 위한 재단인 '승일희망재단'에 8180만원을 기부했다

다 소속사인 YG엔터테인먼트가 밝혔다. 지드래곤은 같은 소속사 선배인 지누션의 선과 루게릭으로 투병 중인 농구 선수 출신 박승일이 공동 대표로 있는 승일희망재단에 생일인 8월18일을 의미하는 8180만원을 전달했다.

소속사 관계자는 “생일 때마다 의미 있는 기부를 해온 지드래곤이 이번에도 국내외에서 큰 사랑을 준 팬들에게 보답하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팬들도 지드래곤의 선행에 동참, 팬클럽 중 하나인 율예이스-지디 측이 승일희망재단에 818만원을 전달했으며, 또 다른 팬클럽인 권지용서포터즈 측은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등에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 연합뉴스

전남도의회-日 사가현의회 우호교류 간담회



일본 사가현의회 의장 등 의원 방문단 15명이 최근 전남도의회(의장 김재무)를 방문해 양 의회 간 우호교류 및 농업분야 FTA에 대한 의회차원의 대책 등 간담회를 연 뒤 함께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을 시찰했다.

<전남도의회 제공>

이은방 광주시의원, 효령노인복지타운 감사패

광주시의회 이은방(민중·북구 6) 의원이 18일 빛고을노인복지재단 효령노인복지타운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효령노인복지타운은 이 의원이 운동기수 설치 예산을 확보해 어르신들의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됐으며 감사패를 전달했다. 빛고을노인복지재단은 지난 16일 효령노인복지타운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운동기구 설치 준공식과 시연회를 열었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전용준 애드하임 대표 광남일보 회장 취임

전용준(60) 애드하임 대표이사가 19일 광남일보 회장에 취임한다.

이날 오전 11시 광주시 남구 월산동 광남일보 사옥 6층 편집국에서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 신임 회장의 취임식이 열렸다.

전 회장은 조선대 회계학과를 졸업하고 서울신문사 국민체육진흥사업본부 광주지사장을 거쳐 덕림, 광남, 화이트하임, 나노피아, 호남테크노티 사장 등을 지냈다. 또 지난 2006년부터는 7년 동안 무등일보 사장을 역임했다.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84 FAX 062-222-4938, 222-4918

종친회

▲(사)전주이씨 대동종약원 광주·전남 지원 청년 이화월례회의(회장 이의준)=20일(화) 오후 7시 011-645-2284.

▲(사)전주이씨 대동종약원 광주·전남 지원 여성 이화월례회의(회장 이보희)=22일(목) 오전 11시 011-605-2059.

알림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 = 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 사용자 062-1366.

▲광주남구중독관리센터 가족교육 프로그램 안내 = 'BEAUFUL' 문재 없이 너와 내가 함께하는 아름다운·중독으로 고통받는 분들과 그 가족들을 위한 시간을 마련, 일시는 20일·27일, 장소는 광주남구중독관리센터 (남구 미래아동병원 옆) 광주남구중독관리센터 062-413-1195, 062-

412-1464(담당자 김형우)

▲이동학대예방을 위한 상담·신고 전화 운영 = 아동학대는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저해하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학대와 방임을 말한다.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이 학대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을 필요로 합니다. 아동학대와 관련된 상담 및 신고전화 1577-1391은 24시간 운영.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아동보호전문기관.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열린 마음 상담센터 = 북구지역 5개 아파트 단지 내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무료 상담소(우울, 불안, 치매, 스트레스, 알코올, 흡연, 약물, 도박, 인터넷 등) 062-525-1195.

▲광주북구중독관리센터 무료상담 = 알코올을 외에도 인터넷, 도박, 니코틴, 약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과 가족의 회복을 위해 무료 상담 및 정보제공, 교육을 실시. 062-526-3370.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 = 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가사 및 활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요양보호사가 가정으로 방문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 광주서구지역 자활센터 062-351-3029.

▲신용사회 만들기 시민연합 채무상담 = 채무로 고통받는 사람과 신용불량자들의 신용회복을 위해 채무상담(무료) 매주 월~금 오후 5시 062-226-9001~2.

▲홀트아동복지회 국내입양 가정 = “입양은 가슴으로 낳은 사랑입니다” 입양을 통하여 행복한 가정을 원하시는 분들께 도움을 드립니다.(24시간 상담가능) 홀트아동복지회 광주지부 062-227-8877.

모집

▲아시아실버월드 오케스트라 회원 = 관악기(플루트, 클라리넷, 색소폰 등) 총 1개 개인지도 및 그룹·합주지도, 대상은 만 60세 이상 어르신

(주민등록상 북구 거주자) 중 전국가주 평균소득 120%(4인 가족기준소득 568만3000원)이하 062-226-2030, 010-4906-8904.

▲'학습동기향상 및 시간관리' 집단상담 프로그램 = 20일·22일·27일·29일(오전 10시~11시30분), 장소는 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집단상담실, 대상은 초등학교 4~6학년 선착순 10명(062-268-1388).

▲소통·방통 유쾌한 가족을 위한 영화치료-토일렛 참가자 = 28일(수) 오전 9시 30분~낮 12시 30분, 장소는 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집단상담실, 대상은 초등학교 5학년 이상 자녀 또는 학부모 062-268-1388.

▲장애인 무료 야구관람단 = 광주 거주 장애인으로서 27일, 28일(2일 중 선택) 광주 무등경기장 야구관람단 모집, 접수기간은 22일(목) 오전 12시 선착순 100명 마감, 접수처 '장애인복지' 실천광주동분부 062-511-0030 (전화접수, 석식·간식 제공)

▲말말장애회 영산강환경대학 명

에 환경감사원 양성과정 수강생 = 접수일 9월 3일(화)까지(매주 화요일 오후 7시~9시), 대상은 영산강을 사랑하고 봉사활동에 관심이 있는 분, 장소는 밀알회관 4층(북구 금남로 104) 062-526-0314, 010-2635-1080.

▲사한국청소년상담교육협회 정서교정2급 교육 개설 안내 = 9·10·16·17일 오전 10시~오후 6시, 대상은 교육에 관심 있는 분, 장소는 협회교육실(광주 북구 두암동 569-16 5층) 062-652-0675, 010-8299-6237.

▲광주대 풍수지리학 무료 강좌 = 24일(토) 오후 2시~5시, 광주대 도서관 5층, 양택, 음악·수학, 나경·입학원, 비결복명당, 장법요강 등 진경한 이론과 현상 영상 강의(책자무료 제공) 010-3609-8117, 062-670-2161, 2135.

▲다음카페-참된 나(?)하기 학교 무료 교육 = 우울증, 불면증, 두통, 불안심리, 이명, 청청, 환상, 강박관념, 대인공포증, 가우노림, 약물, 자살충동, 신내림, 귀신들림, 정신질환, 신경성질

환, 만성난치·금연금주, 약습·가족갈등, 비만·체질교정, 불성불사, 8고해탈, 진리체득, 학습력강화, 최면, 원인을 알 수 없는 병 등 010-6609-9068.

▲사단법인 대한민국 특전동지회, 재난구조협회 광주광역시지부 특전사=에비역 및 회원 수시 모집 062-225-6500, 011-610-5575.

▲바이오밀(유산균·효소) 두암점 = 장, 소화기 질환, 피곤, 변비, 아기

들 이유식, 건강, 아토피, 갱년기, 관절, 대사성질환, 다이어트를 원하시는 회원 수시모집 062-266-5800, 010-6614-2320.

부음

▲박영민 씨 별세 이수호·수민·수현 씨 모친상=발인(20일) 조선택장례식장 제5분향소 062-231-8905.

謹 上가 故人의 冥福을 빕니다 弔

<p>故양희승님(남/73세)</p> <p>子/婦: 양동성/최문숙</p> <p>女/婿: 양동숙/정찬주, 정숙/김재철, 윤숙/이정근</p> <p>未成人: 김송지</p> <p>• 호 실: 201호</p> <p>• 장 지: 화순도곡</p>	<p>故성준님(남/74세)</p> <p>子: 성광진, 광만</p> <p>女/婿: 성광순/김광수</p> <p>未成人: 김송지</p> <p>• 호 실: 301호</p> <p>• 장 지: 영락공원</p>
<p>故문성호님(남/85세)</p> <p>子/婦: 문태욱/김종란, 성수/김순숙, 오성/정실</p> <p>정실/김주영</p> <p>女/婿: 문영자/양연환, 태림/류재희</p> <p>• 호 실: 401호</p> <p>• 장 지: 화순청동</p>	<p>故기상군님(남/79세)</p> <p>子/婦: 기문택/임순자</p> <p>孫: 기범민, 다솜</p> <p>• 호 실: 102호</p> <p>• 장 지: 영락공원</p>

孝 金호장례식장 http://www.mykumho.com 문의 (062)227-4000